비전임 교수의 임용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최 영 길

Status of Non-fulltime Professor of Medical School

Young Kil Choi,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서 론

비전임 교수는 정규 교수를 제외한 외래교수, 명예교수 및 초빙교수(교환교수) 등의 전임에 해당하는 교수를 지칭하며, 대학 병원을 운영하는 의과대학의 특성에 의해 각 대학은 외래교수 형태로 많은 비전임 교수의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자원이 적절한 교육 목표와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결코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교육목표로 진료 능력을 가진 의사의 배출에 두고 있으나, 대학병원이 3차의료기관으로 고난도 진료만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각과의 특성에 적합한 일차진료를 교육할 비전임 교

수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많은 대학 병원이 재정적 제약으로 교수요원의 확충에 어려운 실정에서 잠재적인 재원의 활용은 매우 긴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사회적 다양화는 학생들에게 지적 요구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으나 비교적 획일적인 대학교육환경에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타개책의 하나로 비전임 교수의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을 생각된다.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비전임 교수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요대학병원의 비전임 교수의 현황을 조사해보았으며, 제도적 발전가능성을 고려해 보았다.

대상 및 방법

비전임 교수는 전임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교수로 정의하였으며, 통합강의에 초청되는 외부대학교수, 특강연자로 초청되는 타 대학 교수나 연구원 또는 대학원 공통강의에 초청되는 외부교수는 제외하였다. 또한 일부대학 임상에서 또한 운영하고 있는 임상교원(임상연구원, 임상강사), 전임의사(fellow) 등을 제외하였다.

의과대학 교육 현황에 수록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표기식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그중 20개대학으로부터 기간 내에 회수되어 분석자료에 이용하였다.

표 1. 비전임 교수의 잠재적 임무

- 1) 일차진료 교육
- 2) 의학 윤리 및 인성교육
- 3) 의료의 현황 및 일선 의료현장 실습(병영 경영 교육)
- 4) 논문 작성 및 문헌교육(의료 정보 교육)
- 5) 첨단의료 동향 소개

본 논문은 1995년 11월 17일 제 3차 의학교육 합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비전임 교수의 임용

설문지가 회수되지 못한 대학중 의과대학 교육현황에 비전임교수 임용현황이 기재된 경우는 분석에 참가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대학 실무자에게 전화 면접으로 자료를 보충하였다.

설문지는 비전임 교수를 외래교수, 명예교수, 교환 교수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기초학 분야와 임상분야의 특성에 맞도록(예를 들어 기초학 분야에

서 중점을 두는 학위과정과 임상분야에서 강조되는 전문의 과정에서와 같이) 설문 내용을 변형하여, 별도로 작성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직급별 임용현황, 임무, 임용절차(추천, 심사, 임용, 기준, 임기), 대우 등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표 2. 기초학 분야에 외래교수로 임용된 교수 숫자

교 실 (과)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강 사	계(%)
해	부	학	48	12	10	7	77(22.6)
생	리	학	24	5	7	1	37(10.9)
생	화	학	27	9	8	·	44(12.9)
병	리	학	34	21	12	5	72(21.2)
약	리	학	27	13	11	·	51(15.0)
미	생	물	26	2	2	1	31(9.2)
예	방	의	24	4	·	·	28(8.2)
계			210	66	50	14	340(100)

표 3. 임상분야에 외래교수 임용된 교수 숫자

교 실 (과)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강 사	계(%)
내	과	학	226	130	113	96	565(12.2)
소	아	과	173	77	59	49	358(7.8)
신	경	과	8	4	7	10	29(0.6)
정	신	과	108	58	48	34	248(5.4)
피	부	과	89	63	56	18	226(4.9)
일	반	외	228	102	94	87	511(11.1)
홍	부	외	38	26	29	10	103(11.1)
정	형	외	131	86	77	48	342(7.4)
신	경	외	104	60	59	17	240(5.2)
성	형	외	57	44	39	21	161(3.5)
산	부	인	225	119	71	33	448(9.7)
안	과	학	77	76	47	12	212(4.6)
이	비	인	141	86	77	40	344(7.5)
비	뇨	기	101	59	62	25	247(5.4)
마	취	과	46	33	34	29	142(3.1)
방	사	선	59	39	37	29	164(3.6)
임	상	병	25	20	21	10	76(1.6)
치	료	방	7	1	5	3	16(0.3)
가	정	의	75	16	24	15	130(2.8)
재	활	의	24	5	10	12	51(1.1)

표 4. 기초학분야에 명예교수 및 초빙교수로 임용된 교수 숫자

교 실 (과)			명예교수	초빙교수
해부학	부	학	3	1
생리학	리	학	7	3
생화학	화	학	7	1
병리학	리	학	7	4
약리학	리	학	3	2
미생물학	생 물	학	2	1
기생충학	생 충	학	2	
예방의학	방 의	학	7	2
계			38	14

표 5. 기초학분야에 명예교수 및 초빙교수로 임용된 교수 숫자

교 실 (과)			명예교수	초빙교수
내과학	과	학	20	1
소아과학	아 과	학	12	
신경과학	경 과	학	2	
정신과학	신 과	학	2	
피부과학	부 과	학	1	
일반외과학	반 외 과	학	11	
흉부외과학	흉 부 외 과	학	4	
정형외과학	형 외 과	학	3	2
신경외과학	경 외 과	학	2	2
성형외과학	형 외 과	학	3	
산부인과학	산 부 인 과	학	1	
안과학	과	학	1	2
이비인후과학	이 비 인 후 과	학	7	
비뇨기과학	뇨 기 과	학	4	
마취과학	취 과	학	4	
방사선과학	사 선 과	학	3	
임상병리학	임 상 병 리	학	2	1
가정의학	가 정 의	학	2	
계			82	9

외래교수의 현황

1. 임용 현황

외래교수제도가 정착된 2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임용된 외래교수는 모두 4,953명으로 이

표 6. 기초학 분야에서 비전임 교수의 임무로 제시한 대학 숫자

	외래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학부 학생 교과 강의	12	3	4
학부 학생 실습 강의	14	1	3
학부 학생 과외활동 지도	2		1
대학원 과정 교과 강의	4		
대학원 과정 실습과정 담당	2		
대학원 논문 지도			
학술집담회 연자(토론자)	6	1	5
대학 부설 연구소 참여	2	1	3
대학 학술 연구 공동 참여	1		4
규정 없음	2	3	

표 7. 임상 분야에서 비전임 교수의 임무로 제시한 숫자

	외래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학부 학생 교과 강의	6	2	3
학부 학생 임상 실습 지도	12	1	2
파견된 병원에서 임상 실습 지도	4		1
학생 과외활동 지도	1		1
대학원 강의 담당	2		
병원내 입원 환자 회진	2		
원내 학술 집담회 연자(토론자)			1
원내 학술 연구 공동 참여			2
대학내 부설 연구소 참여		1	1
담당 환자의 진료의뢰	5		
규정 없음	3	2	

는 조사된 대학의 전체 전임교수의 145%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숫자중 일부에는 외래교수로 여러 대학에서 중복 임용된 숫자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번 조사에서 중복 임용은 조사되지 못하였다. 전체 외래교수를 기초학분야와 임상분야로 구분해보면 기초계열이 340명(6.9%)이었으며, 임상분야가 4,613명(93.1%)으로 임상분야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기초학분야에서 전공별로는 해부학(22.6%), 병리학(21.2%), 미생물학(15%) 등의 순서였다. 임상분야에서는 내과학(12.2%), 외과학(11.1%), 산부인과학(9.7%), 소아과학(7.8%), 이비인후과학(7.5%), 정형외과학(7.4%) 등의 순서였다.

표 8. 기초학 분야 비전임교수의 임용 절차로 제시한 대학 숫자

	외래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주임교수가 학위 출신자 추천	18	2	4
주임교수가 병원의 의사 추천		1	4
학장 추천	1	6	
추천된 교수의 인사위원회 심의	9	12	5
추천된 교수의 학장 임명	4		2
추천된 교수의 총장 임명	8	9	3
임명장 수여식 실시	9	10	
교수계획표 작성 비치	6	1	6

표 9. 임상 분야 비전임교수의 임용 절차로 제시한 대학 숫자

	외래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주임교수가 교실 출신자 추천	14	4	3
주임교수가 병원의 의사 추천	1		3
학장 추천		3	
병원장 추천	3		
동창회 추천	2		
추천된 교수의 인사위원회심의	7	6	2
추천된 교수의 학장 임명	2		1
추천된 교수의 총장 임명	4	6	2
임명장 수여식 실시	3	5	2
교수계획표 작성 비치	2	1	2

각 대학별로 임용된 외래교수 숫자는 40명에서 947명까지 차이가 많았으며 평균 362.3명 수준이었다. 외래교수의 직급별 구분이 가능한 대상에서 교수(40.8%), 부교수(24.3%), 조교수(21.5%), 강사(13.4%)로 부교수급 이상이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러한 분포는 기초와 임상제열에서 비슷한 수준이었다.

2. 외래교수의 임무

외래교수의 임무를 기초와 임상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기초분야에서는 학부학생의 강의 또는 실습의 담당(55%)이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에서는 강의 이외에 세미나 주관 또는 공동 연구의 참여가 있었다. 일부(10%)에서는 외래교수의 규정된 임무가 없

표 10. 비전임 교수의 임용기준으로 제시한 대학 숫자

	외래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학위취득 여부	9		2
전문의 자격여부	10		4
졸업부 경력	12	9	6
의사회 활동	2	2	
병원장 등의 직위		1	
논문 발표 등 학술활동	6	5	8
대학에 대한 기여도	8	6	1

표 11. 비전임교수의 임기와 승진 기준으로 제시한 대학 숫자

	외래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임기			
1년	4		4
2년	15		5
3~5년	1		
종신		13	
임기의 자동 연장	10		
승진 제도	14		
임용에 대한 보고	2	1	4

었으며, 교외 활동을 주관하는 임무나 대학 연구소 참여 등의 임무가 일부(5%)에서 있었다.

임상에서도 강의와 임상 실습을 담당하는 임무가 가장 많았으며(62%), 학생이 파견된 병원에서 임상 실습의 지도(24%)도 있었다. 일부 연구활동에 참여(4.3%)나 학술집담회 주관 등의 임무가 있었으나(6.2%), 규정된 임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14.5%). 일부(24.5%)에서는 환자 진료전달 체계의 임무가 있었다.

3. 임용기준과 방법

외래교수는 기초와 임상 공히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42%), 심사없이(58%) 학장 또는 총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었다. 연 1회 정도의 임명장 전달식을 별도로 시행하는 경우는 45%이었으며, 강의(또는 실습) 계획표를 비치하고 이러한 예산을 확보한 경우는 30%에 불과하였다.

표 12. 비전임 교수의 대우에 대해 제시한 대학 숫자

	외래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대우 내용			
급여(강의료)	4	2	4
차량유지비	2	1	2
교수실	1	6	2
연구시설		2	2
연구원			2
도서 및 자료구입			2
규정 없음	16		
재정 담당			
대학	12	4	3
교실	2	2	1
주임교수	1		1

임용기준 또는 자격으로 졸업후 경력(경과 연수)이 가장 많이(60%) 언급되었으며, 전문의 자격(50%), 학위 취득(45%), 외국 기여도(40%), 학술활동(30%) 등의 순이었다.

외래교수의 임기는 대부분 2년이었으며(75%), 1년(20%), 3년이상(5%) 등이었고, 대부분 승급 제도와 임기 연장이 있었으나, 승진과 연장에 따라 대학에 일정한 보고 규정은 없었다.

4. 외래교수의 대우

외래교수에게 제공되는 대우로 강의료와 교통비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에서 교수실과 연구 시설의 제공이 있었고, 임상분야의 경우 대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가 80%였다. 대우에 대한 재정은 대부분 대학에서 제공되었으며, 일부에서는 교실이 부담하였다.

명예교수 현황

임용된 명예교수는 120명이었으며, 가장 많은 분야는 내과학(20명)이었고, 다음은 소아과학(12명)이었으나 다른 분야는 모두 10명 이하였다.

명예교수의 임무는 기초와 임상 공히 학부 학생의 강의에 참여하였으나, 외래교수의 경우처럼 규정

된 임무와 교수계획표 작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명예교수는 교실과 관계없이 학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자격을 심사하였고, 임명장 수여식을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명예교수의 임명자격은 퇴직전 경력이 가장 중요하였으며, 대학에 대한 기여도가 고려되었고 대부분의 임기는 종신이었다.

명예교수에게 제공되는 대우로 교수실, 강의료, 연구실 등이었으나, 연구비와 연구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재정은 대부분 대학이 담당하였고, 교실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없었다.

초빙교수 현황

초빙교수 제도를 별도로 표기하고 임용 현황을 제시한 대학은 7개 대학이었으며, 임용된 수는 교수 18명, 부교수 1명, 조교수 1명, 강사 5명이었다. 초빙교수는 기초학분야가 14명이었고 임상분야는 9명이었다.

초빙교수의 임무는 기초학분야에서 학부 학생의 강의와 학술집담회 연자, 학술연구 공동참여 등의 임무가 있었으며, 임상에서는 실습지도가 주된 임무였다. 초빙교수는 각교실의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였고, 규정된 교수계획표가 비치되어 있었다.

초빙교수의 자격으로 졸업후 경력과 논문발표 등 학술활동이 중요하였으며 대부분의 임기는 1년이었다.

초빙교수에게는 전임교수에 상응하는 급여와 교수실 그리고 연구비와 연구시설 및 연구원이 제공되고 있었다. 이러한 재정은 대학 당국 또는 교실에서 공동부담하고 있었다.

비전임 교수 제도에 관한 고찰

비전임 교수의 종류 중에서 초빙교수의 경우 각대학의 특성상 일정분야의 전문가를 학생 강의 또는

공동연구를 위해 임용하기 때문에 전임교수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초빙 교수는 학생과 대학에 새로운 자극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급변하는 학문 분야에서 선진 지식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제도로 생각된다. 그러나 초빙교수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기에는 예산확보와 같은 재정상의 어려움이나 한시적인 임용에 따른 책임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최근 과학재단에서는 특정분야에 대해 외국으로부터의 초빙교수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많은 업적을 가진 과학자가 고국에서 봉사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초빙교수 제도의 발전을 기대할만하다. 현황 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대부분의 초빙교수의 임용이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당국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임용규정을 작성하고, 외국 연구자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명예교수 제도는 역사가 오랜 대학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임용된 교수 수도 많지 않았다. 특히 기초학분야의 명예교수 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으며, 재임기간과 같은 임용조건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학문적 발전의 다양성에 비추어볼 때, 명예교수의 임용은 단순히 대학에 재직하고 대학에 기여한 퇴임전 경력보다는 학술활동이나 학문적 공헌을 기증한 임용자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많은 경력을 쌓은 훌륭한 자원이 얼마간의 경력 부족을 이유로 명예교수 임용에서 제외된다면 학문분야의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명예교수의 임용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일정한 임무가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교수계획안이 작성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명예교수에게 제공되는 대우는 강의료 이외에 교수실 또는 연구실 뿐이었으며, 연구비나 연구설비의 제공이 없어 연구 인력자원으로의 임무가 없었다. 이러한 제한은 재정적 부담을 대학에서 전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교실별로 일부의 재정을 분담하여 공동연구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 연구 임무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외래교수의 경우 방대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교육과 연구과정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자원의 손실로 생각된다. 기초분야의 경우 학생강의와 연구 활동에 일부 참여하나 임상에서는 극히 형식적인 임용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많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외래교수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임용된 외래교수 제도가 교육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방대한 인적 자원이며, 특히 학문적으로도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으며, 의학에서 경험에 입각한 실용성도 높다. 또한 교육경험을 가지고 있어 즉시 교육이 가능하며, 교육 시간과 장소에 일부의 제약이 있으나 충분한 조절이 가능하며, 과외활동이 지원에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도적인 발전과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로는 외래교수 임무의 재규정이다. 기초학 분야에서 주로 학생 강의와 임상에서 실습강의 위주로 되어있는 외래교수의 임무를 서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육과 연구뿐 아니라 의료 현황과 윤리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무를 개발하고 교육시키기 위한 내용이 의사연구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외래교수 제도를 발전시켜 임용과정을 엄격히 하는 것이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외래교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상분야의 경우 교실출신 전문의를 일괄적으로 임용하는 경우나, 대학 인근 병원의 개원의를 위촉하는 경우가 많으나, 외래교수 제도를 발전시켜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담당 외래교수와 이러한 임무를 가지지 않는 일반 외래교수로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 외래교수의 경우 종래의 임용절차로 임명되나, 교육담당 외래교수는 논문발표와 같은 일정한 기준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고 임기와 승진을 규정하면 학생의 교육과정에 좀더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로 외래교수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대우에 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외래교수에게 교수

실이나 연구시설을 제공할 수는 없어도 정기적으로 임명장 수여식을 실시하고, 대학내 각종 활동에 초청하며 가능하면 공동연구에 참여시켜, 형식적으로 임명된 외래교수가 아니고 실제로 활동할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교육과정의 규정화가 필요하다. 즉 교육에 참여하는 외래교수에게 교수계획표를 작성하게 하고, 교육후 보고서 제출 및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목적에서 정기적인 외래교수 초청 교수회의를 개최하고, 교수법의 발전과 강화를 위한 강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로, 외래교수에게 대학내 도서관이나 다른 연구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도서관을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하게 하면 매일 진료에 바쁜 개원의에게도 연구시설에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의학정보의 제공을 위한 전상망의 설치나 뉴스레터의 정기발송 나아가서는 별도의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여 연구동향에 대한 방향감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로 외래교수에 대한 의무규정의 설치이다. 모든 외래교수는 일정한 기간에 대학 및 전문 분야 별로 교실을 방문하며, 일정한 공동 연구에 참여하는 등의 규정을 작성하여 대학과의 연대감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외래교수 제도의 발전과 강화가 이루어지면 대학 내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교육을 실제로 담당한 외래교수의 자부심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비전임 교수의 종류에는 외래교수, 명예교수, 초

빙교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황조사에서 방대한 숫자의 외래교수가 임용되어 있으나 임무와 임용절차, 대우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되어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교육 현장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명예교수의 경우 임용의 기준의 제한으로 예상보다 적은 숫자가 임용되어 있으므로, 외래교수에서처럼 임무와 대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교육과 연구에 큰 공헌이 못되고 있었다. 초빙교수는 극히 일부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위해 도입되고 있었으며, 전임교수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었으나 임기와 승진 등에 제한이 있었다.

최근 의학 발전의 다양화와 가속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확실적인 의학교육보다 다양한 교육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다양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외래교수 임무의 새로운 규정을 포함한 제도적 발전과 확충은 새로운 교육 환경 형성에 한 방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Finucne P, Allery LA, Hayes TM: Attitude to teaching among teachers at a British medical school. *Med Edu* 28:213-219, 1994
2. Johnson DH, Zammit-Montebello A: A new faculty training model for countries developing academic family medicine programs. *Acad Med* 65:346-348, 1990
3. Hurst JW: Osler as visiting professor: House pupils plus six skills. *Ann Intern Med* 101:546-549, 1984